

목포 신항 '자유무역지대' 추진...서남권 거점 항구도시로

전남도, 해상풍력 중심항 육성
해수부·산업부와 협의 진행 중
외국투자기업 조세·임대료 감면
베스타스, 터빈공장 4000억 투자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터빈 공장 건립을 계기로 목포 신항만을 자유무역지구 및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국내외 풍력발전 소재·부품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 전초기지로 키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0일 하늘에서 본 목포 신항만 전경. /목포=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가 목포 신항만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될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물론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도 이뤄져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포가 '동해 항구'를 넘어 서남권 경제를 이끄는 거점 항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목포 신항만 터빈 공장 건립을 계기로 신항만을 자유무역지구 및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해수부·산업부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세계 1위 해상풍력 터빈기업인 베스타스는 글로벌 항만물류기업과 공동으로 목포신항만(20만㎡) 부지에 4000억원을 투자해 15MW 나셀(풍력발전장치) 조립공장 등을 설립키로 한 상태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기가와트) 이상의 풍력 터빈을 공급하는 업계 최대기업으로, 전남도는 8월 말 베스타스 이사회 승인 절차가 이뤄지면 9월 구축력이 있는 합의각서(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고, 내년 1분기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과정에서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위해 목포 신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향을 해양수산부와 논의 중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정기적 컨테이너 선박 항로 보유 ▲연간 1000만 t 이상의 화물 처리 능력 ▲3만 t 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 부두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50만㎡ 이상의 배후부지 등이 있어야 한다.

전남도는 목포신항의 경우 현재 화물처리능력(777만 5000 t)과 배후부지 면적(48만5000㎡) 등이 다소 미흡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여건 충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 또는 환

급이 가능하고 반입 신고한 외국 물품·내국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투자 규모에 따른 토지·공장 무상 임대도 가능해져 베스타스뿐만 아니라 목포가 외국 풍력발전 소재 부품 관련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 전초기지로 가능하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전남도는 여기에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중인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베스타스는 이미 전남도 핵심 현안으로 신안 자은-임자도 일대에 추진중인 8.2GW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 사업 중 신안 우이 해상풍력발전(발전사 한화건설·400MW), 완도 금일 해상풍력발전(남동발전·600MW)사업의 터빈 우선공급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전남도는 이같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배후단지 조성시기에 맞춰 해수부와 공동으로 목포신항에 3만 t 급 철재부두(1선석)를 확충하는 방안도 조성키로 했다. 이미 신항만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357억원)을 구축하는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전남도는 "목포 신항만 등 서남권 항만이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들이 몰리는 클러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합계출산율 0.7명 ...출생아수 91개월째 감소

인구 44개월째 줄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출생아 수는 91개월째 감소하는 가운데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4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 2012년 1.26명을 정점으로 2018년 0.98명으로 1명을 밑돌았으며 이후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62명(6.8%) 감소했다.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모(母)의 연령대별로 보면 30~34세가 6.3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40세 이상(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2분기 사망자 수는 8만3359명으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했던 작년 동기보다 7142명(7.9%) 줄었다.

6월 출생아 수는 1만8615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0명(1.6%)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2만6820명으로 1900명(7.6%) 증가했다.

6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8205명 자연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44개월째 감소세다. 2분기에는 2만7272명 줄었다. 세종(321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논의 고위급회의 내달말 서울개최 조율

한중일이 3년 8개월간 중단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의(SOM)를 다음 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장국으로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고위급회의 등 3국 협의체의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한중일 3국의 외교부 고위급 실무 레벨 협의를 9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

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회의가 성사되면 정명원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농통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해 3국 협력 복원과 정상회의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외교당국 논의는 통상 부국장급 협의와 차관보급 SOM, 외교장관 회의 등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차관보급 SOM이 열린다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재개하기 위한 3국의 협의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차례 진행됐으나,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도 있었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이 3국 정상회의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3월 한국이 주도해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3국 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외교적 소통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중앙공원1지구 교통영향평가 다시 한다 ▶5면

KIA 퓨처스 오선우 "가을엔 기회 잡겠다" ▶18면

新팔도명물-씨 없는 감 청도 반시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무공치대
건조식품의 새로운 패러다임

방류걱정 NO!
5cm이하

최상급멸치 1.5kg 한박스가
단돈 **12,000**원이라고?!

(Product of Vietnam)

아시아태평양 산지에서 다이렉트로 유통마진 없이 연결
깨끗한 우리물로 저염처리하여 진공 건조한
최상급프리미엄멸치는 1.5kg **18,000**원!

※ 배달 및 물량에 따라 다소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루와 사장님덜
구매상담 및 대리점(영업희망자) 문의 :
(031)8043-5550
홈페이지 : <http://www.moopoong.co.kr>